어지럼증, 뇌졸중일 수도 있을까요?



weknew x 대한뇌졸중학회 Korean Stroke Society

어지럼증은 흔하며, 대부분 뇌졸중이 아닙니다.

하지만 **갑자기 시작된 심한 어지럼이 수분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되고, 중심을 잡거나 걷기 어렵다면** 소뇌·뇌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



‘빙빙 돈다’는 느낌만으로 귀 질환과 뇌졸중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.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갑자기 시작했는지
2. 몇 초에서 1분 정도로 짧은지, 수시간 이상 지속되는지
3. 머리를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지
4.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있는지

weknew x 대한뇌졸중학회 Korean Stroke Society

B.E. F.A.S.T.를 기억하세요

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.

- B(Balance): 균형 상실·걷기 어려움
- E(Eye): 복시·시야장애
- F(Face): 한쪽 얼굴 처짐
- A(Arm): 한쪽 팔·다리의 힘 빠짐
- S(Speech):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움
- T(Time): 즉시 119에 신고

weknew x 대한뇌졸중학회 Korean Stroke Society

다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위험 신호입니다.

- ✔ 혼자 서기 어렵다
- ✔ 몇 걸음도 걷지 못한다
- ✔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거나 넘어진다

갑작스러운 심한 구토까지 동반된다면
즉시 응급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weknew x 대한뇌졸중학회 Korean Stroke Society

마비 없이 어지럼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

뇌간·소뇌 뇌졸중은 얼굴이나 팔다리의 마비 없이 어지럼과 균형장애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다음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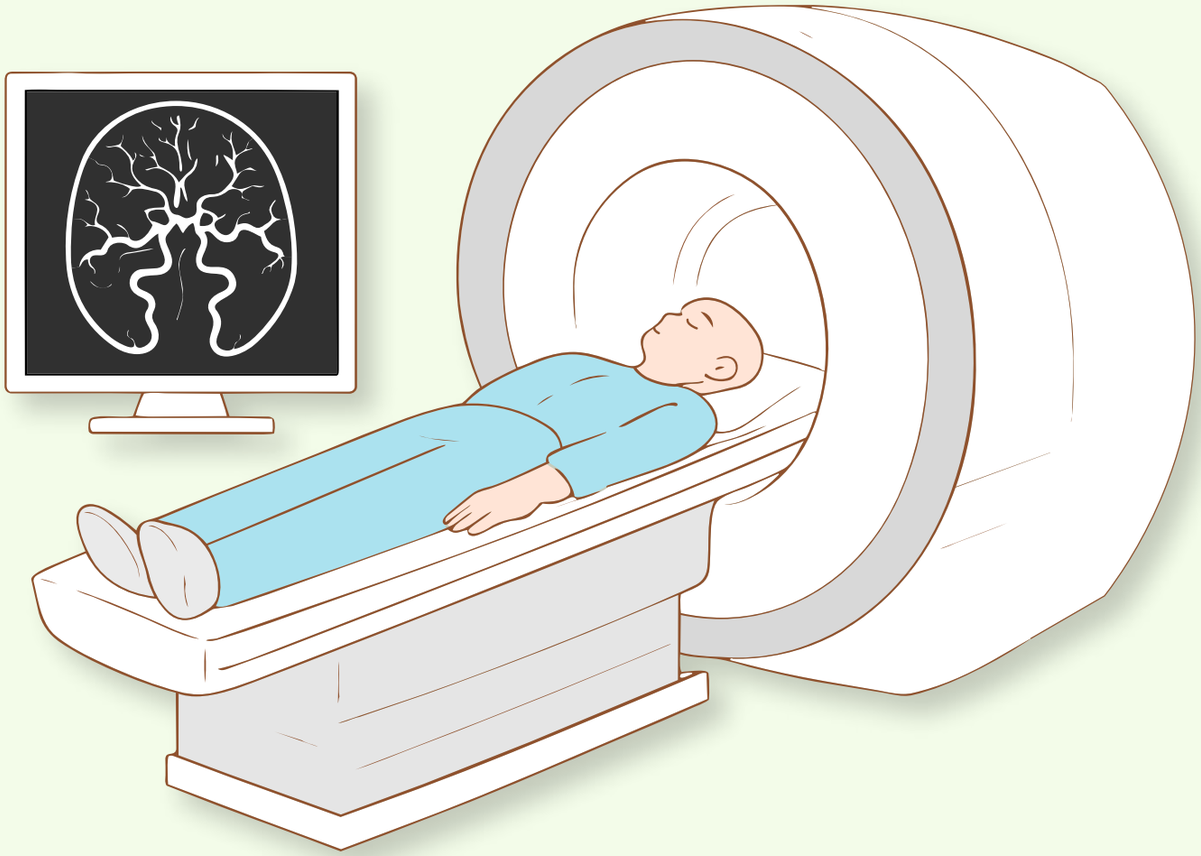
- 물체가 두 개로 보임
- 발음·삼킴 이상
- 한쪽 감각·청력 저하
- 원인 모를 심한 두통

이석증으로 단정하지 마세요

머리를 움직일 때 수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어지럼이 반복된다면 이석증이 흔한 원인입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- 처음 겪는 매우 심한 어지럼
- 가만히 있어도 계속되는 어지럼
- 걷기 어려움이나 신경학적 증상

초기 CT가 정상이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



특히 뇌간·소뇌 뇌졸중은 초기 CT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의료진의 진찰 후 필요에 따라 MRI·MRA 등의 검사를 시행합니다.

weknew × 대한뇌졸중학회 Korean Stroke Society

"의심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!"

-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기억하세요
- 직접 운전하지 말고 구급차를 이용하세요
-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진료받으세요
- 음식·물을 먹이거나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
- 손을 따며 기다리지 마세요

소중한 사람들에게
올바른 건강 정보를
공유하세요

weknew